

요리실습실



계절이다. 앞치마에 모자까지 척 쓴 야영생들이 팔소매까지 걷어올리고 요리실습에 여념이 없다.

아직은 철부지들이어서 매끼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사만 하던 아이들이건만 전혀 조면티가 나지 않는다.

각종 요리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알려주는 지도 교원의 방조속에 홀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양념감을 준비하는 아이, 국맛을 보며 흐뭇해하는 아이, 그 모습들이 천차만별이다.

란자니아와 로씨야에서 온 소년들도, 중국과 웰남에서 온 소녀들도 요리의 재미에 푹 빠졌다.

